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7. 28.(금)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 수온에 따라 사료 투여량 조절하고 액화산소 공급으로 수온 상승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고수온 '특보 발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고수온 특보(국립수산물과학원 발표)>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 수온 28℃ 도달 →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고수온 위기경보(해양수산부 발령)>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심각: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금) 11시부터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하였다.

* 고수온 특보 발표 현황(2023. 7. 28. 기준)

- 예비주의보: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가막만(7. 6.), 제주(7. 21.), 서·남해 전 연안(7. 26.)
- 주의보: 서해 연안(군산 군산항~전남 신안 효지도), 남해 연안(경남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 천수만,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진해만(7. 28.)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www.nifs.go.kr/risa/) 및 '수온정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 <총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0-5614)
			사무관	서경란 (044-200-56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민병화 (051-720-2750)
			연구사	황재동 (051-720-275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연구과	책임자	과 장	임현정 (051-720-2410)
		담당자	연구관	남보혜 (051-720-2420)
			연구사	최 진 (051-720-2431)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

